

독도의 진실-8

-울릉도도해면허의 불법성-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1. 울릉도 도해면허의 불법성

(1) 울릉도 도해면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일본은 1618년, 혹은 1625년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했다고 주장한다. 울릉도 도해면허에는 장군 보좌역 노중(老中)들 4명의 서명이 찍혀 있는데 1618년에는 4명 중 2명이 노중이 아니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서명한 4명이 모두 노중이었던 1625년에 도해면허가 발급되었다는 연구논문이 일본학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1625년 당시 노중들이 모두 8명이었다. 당시 민원처리는 노중들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울릉도도해면허 자체가 8명 중 4명의 노중만이 동의한 면허였다는 것이다.

결국 울릉도 도해면허는 당시의 노중들 전원의 동의 없이 발급된 불법 면허인 셈이다.

(2) 장군가의 '접시꽃' 가문을 내걸고 울릉도로 도향한 돛토리 배들

울릉도로 도해한 돛토리번의 배들은 장군가의 가문인 접시꽃 문양을 깃발로 내걸었다고 하여 일본은 이것이 바로 막부의 공식 승인 하에 울릉도 도해가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돛토리번주가 장군의 딸과 혼인했으므로 돛토리번은 친번(親藩)취급을

받아 원래 도쿠가와(徳川)가문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입장이었다. 울릉도로 도해하는 배에 장군가 가문이 깃발로 사용되었던 이유는 돗토리번 자체가 친번이었기 때문이지 울릉도 도해가 막부의 공식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울릉도 도해를 독점하기 위해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자신들의 배가 막부 소속 선박인 것처럼 타번(他藩)에게 과시하기 위해 장군가의 가문을 내걸었을 뿐이다. 이런 기술에도 일본은 교묘한 왜곡을 범하고 있다.



돗토리번이 친번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도쿠가와 막부의 가문

(3) 울릉도 도해면허는 한번만 발급되었다

울릉도 도해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면허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618(1625)년에 한번만 발급되었고 돗토리번 상인들은 첫해의 도해면허를 복사해 약 70년간 계속 썼다. 돗토리 상인들은 매년 장군가나 막부 중진들에게 울릉도산 전복을

헌상하는 등 선물을 주면서 단속을 피한 것이다.

결국 울릉도 도해면허는 두 번 다시 발급 요청을 하기 어려운 성격의 불법면허였던 것이다.

2. 독도의 일본명, 송도(마쓰시마)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해서 17세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알게 된 것은 울릉도에 도해하면서였다.

그때 울릉도보다 일본에 가까운 독도를 그들 나름대로 발견하면서 송도(松島 : 일본명, 마쓰시마)로 이름을 지었다.

(주) 죽도(竹島=울릉도 : 일본명, 다케시마) 옆에 있으므로 송죽매(松竹梅)의 개념으로 일본인이 독도를 송도로 이름 지었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 돗토리번 상인들이 에도 막부로부터 ‘송도도해면허’, 즉 ‘독도도해면허’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논리로는 1696년 1월 ‘울릉도도해면허’는 막부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독도도해면허’는 폐지된 적이 없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 라고 주장하기 위해 ‘독도도해면허’ 발급을 언급해 왔다.

그러면 과연 ‘울릉도도해면허’와 별도로 ‘독도도해면허’는 존재했던 것인가?

(1) ‘독도도해면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울릉도도해면허’는 에도막부가 발급했다는 증거가 있고 그 형태는 여러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도해면허’가 어떤 형태로 발급되어 어떻게 기재되었는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독도도해면허’자체는 없다. 즉 ‘독도도해면허’자체를 본 사람이 없는 것이 역사의 진실인 것이다.

(2) 일본이 근거로 내세운 기록

그런데 일본 연구자들 중 일부는 독도도해면허가 발급된 해를 1660년이나 1661년이라고 지적한다. 아래는 그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고문서 <이케다가 문서(池田家文書)> 중의 구절이다.

(전략) 내년 귀하의 배가 죽도(울릉도)로 도해할 때 송도(독도)에도 처음으로 도해한다는 건에 대해 무라카와 이치베와 의논하셨다는 것, 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 측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삼가 말씀 드립니다.

오야 큐에몬님. 9월4일. 아베 켄하치로 마사시게(阿倍權八郎政重)

(원문 : <전략> 来年御手前舟竹嶋へ渡海松嶋へも初而舟可被指越之旨村川市兵衛と被致相談尤二候 委細者家来龜出庄左衛門方より可申達候間不能詳候 恐惶謹言 阿倍權八郎政重<花押>九月四日 大屋九右衛門様)

이 고문서를 가리켜 일본이 ‘울릉도 도해면허’ 뿐만이 아니라 ‘독도 도해면허’도 에도막부가 발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문은 ‘독도도해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무라카와 가문과 오야 가문이 독도로 가는 순번을 정하려는 에도 막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울릉도에 도해하는 도중에 독도가 있으므로 독도 도해는 울릉도 도해 면허만으로도 허가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문면을 보면, 무라카와 가문의 사람들은 이전부터 독도에 도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독도 도해 면허 없이 무라카와 가문은 독도에 도항했으므로, 결국 ‘독도 도해면허’자체가 별도로 필요 없는 면허였다.

(※) 일본의 연구에서도 먼저 무라카와 가문이 1657년 경에 독도에 도해했고 1660년에 무

라카와, 오야 두 가문간에서 독도도해의 순번 조정이 있었다고 밝혀져 있다. '독도도해면허' 없이 양가가 독도로 도해한 것이 역사의 진실인 것이다.

3. 죽도와 송도 도해에 관한 돗토리번 고문서들

(1) 오야가의 서장(1681)

1620년경에 에도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은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의 손자인 큐우에몬 카쓰노부(九右衛門勝信)가 1681년에 막부 순검사에 제출한 서장에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서장에 독도가 「작은 섬」으로 적혀 있고 '송도(마쓰시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섬은 울릉도로 가는 도항의 도중에 있고 초목이 없는 암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와 작은 섬(송도=독도)을 배령(拜領)했다고 적혀 있다.

엔포 9년(1681)에 에도막부 5대 장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님이 숙박하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

죽도(울릉도)에 대해 물으셨으므로 이 서장을 썼습니다.

1. 에도막부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徳川家光>님의 시대, 지금부터 50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님(阿部四郎五郎)의 알선으로 죽도(울릉도)를 막부로부터 배령(拜領)하여 그 후 대대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1. 그 섬에 매년 도해하여 강치 기름과 전복 채취에 종사합니다.

1. 오키국 도고(嶋後) 후쿠우라(福浦)항으로부터 죽도(울릉도)까지는 해로(海路) 100여리(약 180km)나 있으므로 해상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1. 죽도(울릉도)는 주위가 10리(약 40km) 정도입니다.

1. 막부 4대장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徳川家綱>님의 시대에 죽도로 가는 도중

에 주위가 20정(약 2.2km) 정도가 되는 작은 섬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목이 없고 바위섬입니다. 24~5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님의 알선으로 이 섬을 막부로부터 배령하여 도해합니다. 이 작은 섬에도 강치가 많아 그 기름을 채취하는 일을 우리의 일로 해왔습니다. 오키국 도고(嶋後) 후쿠우라(福浦)로부터 이 작은 섬까지는 해상 60여리(약 130km)가 됩니다. 5월13일

위 서장은 오야가문과 무라카와가문이 매년 번갈아 울릉도로 도해하던 1681년에 쓰인 문서다.

그리고 서장에는 에도막부 제4대 장군 이에쓰나의 시대에 '작은 섬'(독도)을 발견하여 막부로부터 배령했다고 적혀 있다. 그것은 1660년 혹은 1661년에 독도도해의 순번을 정했을 때의 얘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서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의 도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 오야가의 서장은 어디까지나 사적 문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문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서인 것이다. 예를 들으면 '막부로부터 배령했다' 등의 표현은 오야가의 해석에 불과하다. 결국 울릉도와 독도는 에도막부자체가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2) 오야가의 서장(1740)

1740년 4월, 오야가의 제4대 큐우에몬 가쓰후사(九右衛門勝房)가 에도막부의 사사봉행(寺社奉行 : 절과 신사를 관리하는 중앙관리)에 제출한 「막부에 호소하는 서장(御公儀江御訴訟之御請)」에 관한 서류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1. 죽도(울릉도)에 도해하는 길목에, 오키국 도고(嶋後) 후쿠우라(福浦)로부터 7~80리 정도 가면 종도(松嶋=독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 이 섬에도 도해하고 싶다는 뜻을 막부 제2대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님 시대에 부탁 드렸는데 소원대로 허락해 주셨으므로 죽도(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도해했습니다.

이 문서 속에도 독도가 송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송도(독도)를 배령한 시기에 대해 이 문서는 에도막부 제2대 장군 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전술한 오야가의 서장(1681)에는 제4대장군 시대로 나와 있어 그들이 말하는 독도 배령 시기에 혼란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서장도 사적 문서이자 오야가의 견해만을 적은 문서인 것이다.

(3) 오야가의 구상서(1741)

1741년 6월 10일에 제4대 큐우에몬 가쓰후사가 나가사키 봉행소(長崎奉行所)에 제출한 구상서에도 「작은 섬」이 당시 '송도(마쓰시마)'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적혀 있다.

에도막부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님의 시대에 죽도(울릉도)에 가는 길에 또 송도(독도)라는 섬을 발견하여 말씀 드렸는데 죽도(울릉도)처럼 지배를 맡겨주셨으므로 두 섬에 도해해 왔습니다. 매우 고맙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도 17세기부터 일본인이 독도를 송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도해했다는 증거로 언급되는 문서이다. 그러나 송도(마쓰시마)의 발견과 배령의 시기를 이 문서에서는 에도막부 제3대 장군 시대로 적었다. 문서마다 독도 발견과 그 배령의 시기가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본 연구자들도 지적한다.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 이후 오야가문이 몰락했다. 그러므로 오야가문은 다시 울릉도, 독도에 대한 도해를 허락해 달라고 에도막부에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에도막부는 이 두 섬에의 도해를 두 번 다시 허락하지는 않았다.

